



# 사랑의 메아리

국제 ACN 설립

# 70주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Aid to the Church in Need Korea

발행: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전화: 02-796-6440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2017년도 제7호 · 11월 발행



프란치스코 교황,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 성지  
© Arlindo Homem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의 활동은 파티마 성모님 발현 사건 없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ACN은 파티마에서 묵주기도의 성모님께서 주신 '영적 전략'에 따라 이 세상의 커다란 악인 무신론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1917년에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예언적인 말씀과 전 세계에 대한 강복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을 ‘사도들이 선종한 이후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가장 크게 개입하신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핵 분쟁 위기까지 치달을 정도입니다. 성모님께서 묵동들에게 보여 주신 것들은 오늘날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파티마에서 하신 강론 중에 “파티마의 예언적 소명이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모 성심께 전 세계를 봉헌하시면서 “인간은 이전에는 없

을 봉헌하며,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속죄의 친교를 나누고,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일상의 희생으로써 죄인을 다시 선하게 하고 회개시킴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위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와 회개의 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파티마의 메시지에 그 핵심적 기초를 확고하게 두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과 ACN 설립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우리의 활동이 파티마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과 한가지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 확인하고 성모님께 우리를 새로이 봉헌하고자 합니다. 묵주기도 성월인 10월은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기도하고 성



ACN의 활동은  
파티마 성모의 메시지,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린 묵동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와 무신론적 공산주의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메시지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결과는 가혹했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교 박해입니다. 신자 수가 엄청난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에 걸쳐 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유례없이 강한 힘을 가진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를 사용해서 세상을 꽃피는 정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꽃피는 정원’으로 만들게 하려고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초자연적인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도구는 파티마의 어린 성인 성녀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들입니다. 바로 날마다 묵주기도를 드리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세상

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파티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성모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희망과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ACN 지도 신부



# 어제를 만나다 - 고통의 땅을 찾아서

오늘날 한국 가톨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전쟁의 상처와 가난, 그리고 차별과 박해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우리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빈곤과 차별, 박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이처럼 차별받고 박해받는 세계의 가난한 교회와 연대하기 위하여 올해 가톨릭평화신문과 함께 '고통받는 교회를 도웁시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파키스탄, 레바논, 우간다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먼 나라이지만, 그곳의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맞닿아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하여 세 기행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ACN의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은총의 대림 시기를 맞아 주님의 자녀로서 파키스탄, 우간다, 그리고 중동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대주교

키자 수녀

아브도 신부

## 프로그램

### 식전행사

- | 축하연주 | 손지원 마틸다 / 해금 연주자
- | 시작기도 | 유경춘 주교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ACN 한국지부 이사
- | 개회사 | 염수정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ACN 한국지부 이사장
- | 소개 | 요하네스 클라우자 / ACN 한국지부장
- | 축사 | 필립 오조레스 / ACN 사무총장

### 세션1 박해에서 빈곤까지 - 오늘날 고통받는 교회

- | 사회 | 주원준 박사 / 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ACN 한국지부 이사

#### 파키스탄의 차별받는 교회: 차별 가운데서 종교 간 대화의 촉진

- | 발표 | 세바스찬 쇼 대주교 / 파키스탄 라호르대교구장

#### 우간다의 가난한 교회: 극빈한 우간다에서의 교회의 역할

- | 발표 | 앤 크리스틴 키자 수녀 / 우간다 타업오신 속죄의 마리아 성심 수녀회 총원장

#### 중동의 박해받는 교회: 중동에서의 또 다른 출애굽?

- | 발표 | 레이몬드 아브도 신부 / 레바논 맨발의 가르멜회 관구장

#### 순교에서 선교로, 고통받는 교회와 연대하는 한국 교회

- | 발표 | 한홍순 교수 / 한국외대 명예교수, ACN 한국지부 이사,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 세션2 종합토론 - 우리의 어제, 이들의 오늘

### 폐회



## ACN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어제를 만나다 - 고통의 땅을 찾아서

| 일시 | 2017년 12월 2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 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 오후 7시  
| 장소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 02-796-6440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 그들은 무명 순교자인가?

##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고서 요약집 2017

제가 있는 레바논 베카 계곡에서도 전쟁의 여파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시리아 난민 800가구, 즉 6천 명이 넘는 신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난민이 끔찍한 탄압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사제가 납치되자 그의 부모가 몸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명 순교자인가? 2017> 보고서가 보여주듯 극단주의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만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도 휩쓸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신자도 정부의 탄압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한 ACN은 끔찍한 사태를 보고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려 힘쓴다는 것을 압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햇빛은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흐레 푸졸 대교구장 이삐 존 다르위시 대주교 <그들은 무명 순교자인가? 2017> 머리말 중에서

### 보고서 신청하기

ACN이 2년마다 조사하여 발행하는 <그들은 무명 순교자인가? 2017>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고서 요약집입니다.

휴대폰 문자 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받아 보세요!

### 신청 방법

<p><b>문자</b> 010-7475-6440 (작성 예: 이름, 주소, 신청 부수)</p>	<p><b>인터넷</b> <a href="https://goo.gl/kz1CWm">https://goo.gl/kz1CWm</a></p>
--	---

ACN 영국지부 역음 | ACN 한국지부 옮김 | 210 x 297 mm | 34쪽 | 무료 배포 (재고 소진 시까지) | 문의 02-796-6440

#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한 대림·성탄 자선음악회

생상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와 '캐럴'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초청  
2017 대림·성탄 나눔 음악회

- |  |   |  |
|--|---|--|
| <p><b>일시:</b> 12월 9일 (토) 저녁 7시<br/><b>장소:</b> 길음동성당<br/><b>문의:</b> ☎ 02-918-9540</p> | <p><b>12월 14일 (목) 저녁 8시</b><br/><b>대치2동성당</b><br/>☎ 02-565-1994</p> | <p><b>12월 16일 (토) 저녁 7시</b><br/><b>가회동성당</b><br/>☎ 02-763-1570</p> |
|--|---|--|

주최: 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 길음동성당, 대치2동성당 | 후원: ACN 한국지부 | 출연: 트리니타스합창단, 트리니타스챔버오케스트라 | 협찬: 다림바이오텍, 알렌오르간



# 고통받는 이를 위한 미사 예물

“아! 사제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요! 사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제의 말을 따르십니다. 사제는 단 두 마디에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작은 성체 안에 머무르십니다.”

아르스의 성자 장 마리 비안네 신부는 목숨이 다하도록 이 신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고해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최장 16시간 동안 고해 사제석에 앉아 있을 정도였지요. 그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와 거룩한 성체를 통해 하늘과 땅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제들의 수호성인이자 모범이지요.

**베네수엘라**의 라몬 모야 신부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자 했습니다. 모야 신부는 척추암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받았고 화학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미사를 집전합니다. 미사 예물 덕분에 약값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요즘 사정이 특히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



베네수엘라 '십자가의 길'



“성품성사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서 ACN으로 들어오는 지원 요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필품이 부족하고 의약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미사를 드릴 장소마저 모자란 실정입니다.

밀란 코레아 신부는 베네수엘라 마르가리타섬의 한 거리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자들은 성체를 모실 때면 면지를 뒤집어 쓴 채로 경건하게 장궤합니다. 폭력이 만연한 이 나라의 다른 곳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코레아 신부 역시 미사 예물로 생활에 도움을 받고 사목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마르가리타섬에서 극도의 빈곤을 겪으며 활동하는 사제 14명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해 주신 **미사 예물 8,160유로(약 1010만 원)**는 사제들은 물론 그들이 사목하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께 오십시오”

14억 3600만 대에 이르는 미사 예물로 전 세계에서 22초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순교 도시 홈스에서도 매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이따금 수류탄 소음이 들릴 때도 변함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찬의 전례를 하러 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신 성 비안네 신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시리아 가톨릭교회 홈스대교구장 필리프 바라카트 대주교는 “미사 예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가난한 교구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제들과 신자들은 하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전쟁 속에서, 또한 평화 속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홈스의 신자들

ACN 후원자 여러분께서는 올해 홈스대교구에 **미사 예물 1,020 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몰탄 교구에는 935대,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랑킵스크 대교구에는 3,500대, 아프리카 대륙에는 해마다 수십만 대에 이르는 미사 예물이 전달됩니다. 프랑스의 한 사제는 당신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미사 예물로 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품성사가 없다면, 즉 사제가 없다면 교회는 그저 자선가의 모임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안네 신부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사제는 “하느님 아버지의 가장 가치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사 예물은 이러한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 모두 미사 예물에 인생해지지 맙시다!



##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사랑의 행위는 사랑의 말에 견고한 힘을 실어 줍니다.”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선교는 말과 행위 모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 덕택에 사제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예도 있습니다. 니카라과 히노테가 교구의 원주민들은 1년 동안 사제를 기다렸습니다. 오직 보트로만 이 교구 관할 구역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제들은 이곳을 기꺼이 서너 번씩 오가며 31개 마을에 사는 미스티코족과 마얀냐족 성사를, 특히 성체성사를 집전하십니다. 이 선교 사제 가운데 한 분인 크리스토팔 가데아 신부는 “선교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들을 통해 깊고 자연스러운 신앙을 배웁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제들이 사용하는 보트의 모터는 때때로 고장이 납니다. 이 모터가 제 기능을 지속해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사제들에게는 새 모터를 살 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보트도 겨우 빌려서 타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히노테가 교구장 카를로스 엔리케 구티에레스 주교는 오래된 모터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부품을 떼어내어 팔아서 1,300유로(약 160만 원)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교구가 큰 것과 작은 것 1대씩 소유하고 있는 보트는 사람 손으로 노를 저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보트에 각각 큰 엔진과 작은 엔진 1개를 다는 데 모두 5,500유로(약 680만 원)가 듭니다. 여기에 연료비랑 부품 교체비가 더 들어갑니다. 구티에레스 주교가 ACN에 4,500유로(약 557만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주교는 성모 신심이 아주篤실하신 분으로, ACN으로 보내온 서신의 모든 페이지 아래에는 “사람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히노테가 교구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주교와 사제들은 미스티코족과 마얀냐족 신자들과 구원의 기쁨을 더 자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선교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남수단의 도시 카요케지에서는 콤포니 선교 수녀회 수녀 세 분이 전쟁 중에도 여러 해 동안 선교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의 친밀감은 남수단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진실된 말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피난을 가야 했고 작은 수녀원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카요케지의 수녀들도 우간다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수녀들과 함께 우간다에서 임시 피난처를 마련했지만, 이곳은 난민촌에서 17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하고 난민들을 돕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난민촌 근처에 집을 마련하려면 집값만 25,000유로(약 3100만 원)가 들고 여기에 물탱크, 태양전지판, 가스레인저 등을 사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집은 피란길에 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콤포니 선교 수녀회는 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들과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ACN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CN은 수녀님들께 3만 유로(약 3714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교 사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22,27)



## “자비를 베푸소서”

1977년 늦여름 레바논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언론 기자들은 안전한 베이루트 서부 지역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동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그곳의 그리스도인을 파시스트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렌프리트 신부(ACN 설립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동부 지역에 정보원을 보냈습니다.

그 정보원은 키프로스에서 바다를 건너 레바논에 도착했습니다. 공황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난민촌으로 갔습니다. 유엔에서 파견한 사람도 아직 그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속에 있는 마로니트 교회 수도원에는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글로 적어 보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의약품, 분유, 이불 등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레바논의 노인들은 베렌프리트 신부가 보낸 희망의 일꾼에게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로니트 가톨릭교회 티레 대교구장 슈크라틸라 나빌 아하지 대주교는 “전쟁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베렌프리트 신부님께서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라며 ACN에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티레대교구는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위협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지켜 주고, 사제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은 대부분 친척과 함께 지내거나 교구가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알하지 대주교는 “저희 교구 사제 25명은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느라 이미 녹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우리 형제자매들과 연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알하지 대주교는 연대와 함께 미사 예물을 요청하였습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로부터 기도를 하느님의 손에 올려놓는 법을 배웠다는 대주교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도움을 주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이미 저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ACN에 영원한 감사의 인사와 제 진실된 마음을



마로니트 교회 전례를 따라  
미사를 집전하는 알하지 대주교(위)  
그리고 티레대교구 사제(아래)



보내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풍성한 은총과 평화와 기쁨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티레대교구는 마태오 복음서 15장 21절에 나오는 ‘티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곳에서 만나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고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표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로니트 가톨릭교회는 동방 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와 가장 오랫동안 일치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알하지 대주교와 티레대교구 사제 25명을 위해 1만 유로(약 1238만 원) 상당의 미사 예물 1,250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티레대교구는 ACN 후원자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 교회의 손에 들린 목주처럼



희망의 증인  
필리핀 팔로대교구장 존 듀 대주교



믿음의 증인  
니제르 그리스도 종의 우애회 킹보 수녀원장



사랑의 증인  
시리아 애니 데메르지안 수녀(알레포 난민구호담당)

ACN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알리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베렌프리트 반 슈트라텐 신부가 여러 해 동안 진주로 목주를 만들 듯이 박해받고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ACN은 오늘날 14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교황청 재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ACN의 목표는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하느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베렌프리트 신부는 수천수만 번 후원자 여러분의 자비를 청하였습니다. 새천년이 도래하며 베렌프리트 신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베렌프리트는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제직을 청원하던 시절에 받은 이 이름이 언제나 영예로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시인합니다. 제가 삶을 사는 동안 베렌프리트라는 이름답게 사는 데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낼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재단이 여러분께 보내 드린 연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불신하는 이들이 아직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으며 사탄도 여전히 이 세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붕괴했지만, 평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아직 충분히 싸우지 않았다는 뜻이며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희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더욱 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평화는 불의, 억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죄인인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자주 배반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싸

움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후원자 여러분께 호소했습니다. 수많은 후원자 여러분의 기부로 베렌프리트 신부는 ACN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ACN은 23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지만, 날로 커지고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많은 이들이 기도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많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도움을 거절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싸우지 않았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고, 충분히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은 올해 역시 평화는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손에 목주가 들려 있듯이 기도를 통해, 그리고 희생을 통해 함께 해 주시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는 파티마에서 ACN을 성모님께 봉헌하셨을 만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했습니다. ACN은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대표로 주교 1명과 수녀 2명으로 이루어진 ‘세 명의 증인’을 이번 행사로 초청했습니다. 이 증인들과 함께 우리는 ‘흰옷을 입은 여인’ 앞에 나아가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필리핀 팔로의 희망의 성모께서는 가슴에는 목주를 들고 계신 아기 예수를, 팔치에는 애원하는 아이를 두고 계십니다





## ACN 70주년을 축하합니다!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여러분의 활동은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저는 쿠바에서 사목 활동을 일구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용 성경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유캣(YOUCAT)>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제들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미사 예물 덕분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당 건물들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확성기가 없었다면 우리의 교회 행렬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은 수많은 이들이 낸 '과부의 헌금'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더욱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더욱 널리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께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코브레의 자비의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쿠바 바야모 만사니요 교구장  
알바로 베이라 루아르카 주교

####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이 없었다면

진심을 담아 축복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희 교구에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는 성당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사 예물은 사제들이 생활을 이어 나가는 데 유일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나라를 찾는 사람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카메네츠포돌스키 교구장  
막시밀리안 레오니드 두브라스키 주교

####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를

ACN에 마음을 다해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이지리아와 온 아프리카에서 저희의 선교 사업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제와 수도자에 대한 교육 지원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희 역시 언젠가는 후원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 대교구장  
존 올로룬페미 오나이에칸 추기경

####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리아의 그리스도인에게 보내 주시는 여러분의 지원은 전쟁 발발 초기부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목 활동에서 교육과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순교자를 기억하는 의미로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붉은빛을 밝혔을 때 그 분수 앞에서 굉장한 밤을 보냈던 감동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칼데아 가톨릭 알레포 교구장  
양투안 오도 주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알레포의 난민 구호 자원봉사팀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폰 쥐트비크

Johannes Freiherr  
Heereman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재단 설립 70주년을 맞이 하면서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라는 성 바오로의 코린토 2서 8장 3-4절 말씀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바오로 성인이 증언한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2코린 8,2).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관대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 시절 바오로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ACN은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께서 사심 없이 후한 인심을 베푸신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ACN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어쩌면 형식적인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후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후원자들과의 직접적 소통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근간은 바로 여러분들의 사심 없는 후원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사랑은 모든 선의 뿌리”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사랑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화: 02-796-6440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사랑의 메아리 2017년도 제7호>

발행: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번역: 조원형 | 편집: 이재원, 유영훈 | 사진: 별도 명시  
Original German Edition | Publisher: Aid to the Church in Need Intl. | Editor: Jürgen Liminski



고통받는 교회 돕기

검색

